

'26. 4. 10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 시카고서 대낮 차 타고 가며 총격...8세 소녀 포함 3명 부상
 - 4.2 외신은 2일 오후 5시경 미국 시카고 더글러스 지역에서 검은색 SUV를 탄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8세 소녀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,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 보도
 - ※ 지난해에도 10대 사망 사고가 있었으며 강력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언
- 아르헨티나, '이란 혁명수비대' 테러단체 지정...美와 밀착 가속
 - 4.2 언론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1994년 유대인센터 테러의 배후인 헤즈볼라를 지원한 이란 혁명수비대(IRGC)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단행했다고 보도
 - ※ 이는 「밀레이」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美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을 공고히 하고, 서방의 이익 수호자로서 역할을 본격화하는 행보라고 부언
- 美, 백악관 맞은편 공원에서 총격 사건 발생
 - 4.6 언론은 美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라파예트 공원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, 비밀경호국은 워싱턴 경찰과 협력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으며, 백악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부언

중 동

- 이란, 美·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혁명수비대 정보수장 사망
 - 4.6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 정보기구* 수장을 포함한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, 이란은 이스라엘 등을 향해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섰다고 보도

※ 이란 정부의 정보부와는 별도로 반체제 인사 감시, 정부 내 인사사찰, 방첩 등을 담당하며 정보부보다 영향력·정보력이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부언

아·테

○ 韓, 금전 받고 테러 대신 수행한 '보복 대행' 조직 구속 송치

- 4.3 언론은 금전을 받고 테러를 대신 수행한 '보복 대행' 조직 총책이 구속 송치됐으며, 텔레그램 의뢰와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인분 투척 등 범행을 저지른 일당과 의뢰인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

○ 韓, AI 신종테러 대응책은?.. 경찰청·美에너지부 인천서 심포지엄

- 4.5 언론은 경찰청과 美 국가핵안보청(NNSA)이 미국·호주·캐나다·필리핀 등 20여개국의 軍 특수작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는 「韓-美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」을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보도
- ※ 경찰청과 美 에너지부는 2023년 협력 동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차량형 방사능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다고 부언

○ 인도, 파키스탄 국경 인근에서 급조폭발물 소지 남성 체포

- 4.5 외신은 인도 암리차르 경찰이 파키스탄 국경 인근에서 드론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급조폭발물을 소지한 청년을 검거, 파키스탄 정보기관(ISI) 개입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보도
- ※ 암리차르 경찰서장인 「수하일 카심미르」는 해당 폭발물은 도시락통 케이스 형태로 PTD 스위치와 배터리를 포함한 급조 폭발물이라 부언

○ 인도네시아, 테러 자금조달 사건에 첫 블록체인 증거 적용

- 4.7 언론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 자금조달 혐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증거로 3명에게 유죄 판결을 했으며 피고인 중 1명은 15건 총 4만 9천달러를 ISIS에 보냈다 보도
- ※ 同 사건은 동남아시아에서 블록체인 기반 증거로 테러 자금조달을 적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부언

○ 韓, 경찰청-FBI 중범죄자 정보 공유

- 4.7 언론은 韓-美 경찰이 중범죄자의 신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하며 법안에는 테러 계획·참여자 등 주요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고 보도
- ※ 한국은 '08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으로 "韓-美간의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"을 가입했지만 이행은 지연되었다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美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

- '13.4.15 美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선 부근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·280여명 부상
 - * 오후 2시 50분경 다수의 선수가 결승선 통과시 170m가량 이격된 지점에서 2회 폭발
-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러시아 체첸 이민자 가정 출신인 「타메를란 차르나예프(26세)」와 「조하르 차르나예프(19세)」 형제를 용의자로 특정, 동생 「조하르」를 검거(「타메를란」은 체포과정에서 사망)
 - 이들은 극단주의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,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을 배운 '압력술 급조폭발물(IED)'을 연쇄 폭탄 테러에 사용
- 한편, 범인 「조하르」는 '15년 1심에서 사형 선고 후 '20년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으나, '22년 3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선고

테러 상식

< 급조폭발물 >

- (정의) 급조폭발물(IED / Improvised Explosive Device)는 기존의 전통적인 군용 폭발물이 아닌, 민간용 물품과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된 비정규 폭발 장치
- (구성) 일반적으로 기폭장치, 폭약, 외피(용기), 그리고 트리거 시스템(원격, 압력, 타이머 등)으로 구성
- (원리) 기본적으로 폭약에 에너지를 가해 폭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며, 일반적인 군용 폭탄과는 달리 보다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트리거 방식을 사용하는 등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하기 쉽다는 점이 특징
- (압력술 폭탄) 구성은 압력술 안에 기폭제 및 장약과 함께 살상력 극대화를 위해 쇠파이프·못·나사·금속류 등을 넣고 외부에 타이머를 부착

